

교회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삶의 목적, 영적안녕, 자아개념 및 자아 존중감 비교

A Comparison of the Purpose in Life, Spiritual Well-being, Self-concept and Self-esteem between In-Church Adolescence and Out-Church Adolescence

강은실(고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영은(고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조향숙(고신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

I. 서론

II. 문헌 고찰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고찰

VI. 결론 및 제언

A Comparison of the Purpose in Life, Spiritual Well-being, Self-concept and Self-esteem between In-Church Adolescence and Out-Church Adolescence

By Eun-Sil Kang(Kosin University)

Young-Eun Lee(Kosin University)

Hyang-Sook Cho(Kosin University)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compare the Purpose in life, Self-concept, Self-esteem and Spiritual well-being between in- church adolescence and out- church adolescence.

Design of this study was descriptive comparative study. Object of the study were 215 adolescences of high school students in P, M city of Korea.

Data was collected from 7th Nov. to 12th April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Tools of this study were PIL(Purpose in Life) developed by Crumbaugh와 Maholick(1969), scale for self- concept by Lee & Won(1995), Rosenberg's self- esteem scale translated by Choi(1972), scale for spiritual well-being of Paloutzian & Ellison translated by Choi(1990)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chi-square test, mean, standard deviation, independent t-test, ANOVA with SPSS/PC 10.0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 :

1. Purpose in life, Spiritual well-being of in-church adolescence were statistically higher than them of out-church adolescence($t=-2.759, P=.006, t=-11.082, P=.000$).

2. General characteristics statistically related to the Purpose in life, Self-concept, Self-esteem and Spiritual well-being of in-church adolescence and out-church adolescence

1) General characteristics statistically related to the Purpose in life of in-church adolescence and out- church adolescenc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in-church adolescence statistically related to the supervision of the God to my day life($F=5.513$, $p= .000$), the degree of reading of religious books($F=7.623$, $p= .000$), the need of religious life($F=7.872$, $p= .001$), the Purpose in life are the influence of the religion to own' s life($F=5.175$, $p= .002$), the degree of meditation or contemplation prayer($F=4.635$, $p= .002$), the degree of help of the religious life or religion($F=3.055$, $p= .019$), the degree of attendance at a religious service($F=3.202$, $p= .026$).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out- church adolescence statistically relate to the degree of reading of religious books($F=7.144$, $p= .000$), the influence of the religion to own' s life($F=8.064$, $p= .001$), the degree of attendance at a religious service($F=5.577$, $p= .001$), the degree of help of the religious life or religion($F=4.142$, $p= .004$), the supervision of the God to my day life($F=3.914$, $p= .006$), the supervision of the God to my day life($F=3.914$, $p= .006$), the religion of parents($F=3.049$, $p= .014$), the family atmosphere($F=3.650$, $p= .016$), the Purpose in life are the level of life($F=2.544$, $p= .035$), the motivation of entrance into an university($F=2.744$, $p= .048$).

2) General characteristics statistically related to Self-concept of in-church and out-church adolescenc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statistically related to Self-concept of in-church adolescence are the family atmosphere($F=7.296$, $p= .000$), the motivation of entrance into an university($F=4.383$, $p= .006$), the counsel subject of one' s personal affairs($F=3.206$, $p= .006$), the need of religious life($F=4.289$, $p= .016$), a generation gap of parents($F=3.549$, $p= .016$).

The general characteristic statistically related to Self-concept of out-church adolescence is the family atmosphere($F=4.949$, $p= .003$).

3) General characteristics statistically related to Self-esteem of in-church and out-church adolescenc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statistically related to the degree of Self-esteem of in-church adolescence are the family atmosphere($F=3.628$, $p=.008$), the degree of help of religious life or religion($F=3.628$, $p=.008$), the motivation of entrance into an university($F=2.795$, $p=.043$).

The general characteristics statistically related to the degree of Self-esteem of out-church adolescence are a generation gap of parents($F=3.289$, $p=.025$), the family atmosphere($F=2.810$, $p=.045$).

4) General characteristics statistically relate to Spiritual well-being of in-church and out-church adolescenc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statistically related to Spiritual well-being of in-church adolescence are meaning of religion or God to me($F=4.900$, $p=.000$), the influence of religion to own's life($F=20.598$, $p=.000$), the supervision of God to my day life($F=14.702$, $p=.000$), the need of religious life($F=19.201$, $p=.000$), the degree of meditation or contemplation prayer($F=9.723$, $p=.000$), the degree of attendance at a religious service($F=8.779$, $p=.000$), the degree of reading of religious books($F=3.856$, $p=.005$), the motivation of entrance into an university($F=2.886$, $p=.038$).

The general characteristics statistically related to Spiritual well-being of out-church adolescence are , the influence of religion to one's life($F=19.931$, $p=.000$), the supervision of God to my day life($F=22.927$, $p=.000$), the degree of help of religious life or religion($F=12.649$, $p=.000$), the degree of reading of religious books($F=7.057$, $p=.000$), the need of religious life($F=14.444$, $p=.000$), the degree of attendance at a religious service($F=7.755$, $p=.000$), the counsel subject of one's personal affairs($F=2.840$, $p=.030$), the religion of parents($F=2.638$, $p=.030$).

In conclusion,

for the in- church adolescence, the program to increase their self- concept, self- esteem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And for the out- church adolescence, the program to increase their spiritual well- being, purpose in life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Key concept ; Purpose in life, Spiritual well-being, Self-concept, Self- esteem

Key words: 교회 및 일반 청소년, 삶의 목적, 영적안녕,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생의 단계 중 청소년기는 내면세계에 눈을 뜨고 인생의 목표를 찾기 위해 인생관, 세계관, 직업관 등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이며, 특성은 심리, 정서, 흥미, 행동, 가치관 등에 변화가 일어나는 변환기, 불안기, 비현실적인 시기로서 성인기로 향하는 출발점이 되는 시기이다(윤봉숙, 1983). 청소년기는 아동과 성인에도 속하지 않는 독특한 시기로서 양자에 모두 속한 시기이며 이와 같은 이중적인 성격 때문에 불안과 긴장, 소외와 갈등, 부정과 반항, 과격성과 충동성의 특성들과 함께 정열과 모험, 의욕과 이성, 순수성과 가능성이 표현된다.

청소년기에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 이후 삶에 대해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표로 옮겨가게 되고 자신의 가치와 발달 가능성 등을 잘 파악하여 독립적이고 풍부한 개인 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 정체감과 삶의 목적이 확립되지 못하면 자신감의 상실과 우울증, 무의미감, 부정적 삶의 태도, 비행에 빠질 위험이 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삶의 가치와 의미의 상실, 고독, 갈등, 소외감 및 실존감의 상실로 인해 실존적 공허상태를 경험하고 있는데 실존적 공허란 삶의 궁극적 의미의 완전한 결여 또는 상실을 경험하는 것으로서 그 증상은 공허감, 권태감, 무가치, 무의미로 나타난다(Frankle, 1969; Farby, 1980). 이러한 실존적 공허의 원인을 Frankle(1967)은 본능과 전통의 상실을 들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가치의 상실이 인간으로 하여금 실존적 공허감을 갖게 하여 실존적 좌절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다(김승욱, 1985).

Fish & Shelly(1980)도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은 의미가 있고, 우리들은

그 사건의 의미를 발견함으로써만 질병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인생의 의미와 목적, 고통의 의미와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이 세계를 통제한다는 사실을 아는 지식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미래에 대한 가능성 없이는 현재의 관계와 지식은 영원한 희망을 제공해 줄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그 희망은 후세에 계속되는 신과의 영원한 친교에 대한 약속이고, 간호사는 환자와 신과의 관계의 촉매자 또는 다리 역할로서 삶과 위기 상황이 갖는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도록 환자를 도울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한편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의 목적이 원대해짐에 따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된다. 원대한 생의 목적과 운명은 종교와 관계를 갖는다.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나는 생애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의문은 종교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종교적인 심성을 가진 청소년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도덕적, 종교적 지도를 받지 못하면 위기가 생기고 신앙을 부정하기도 한다. 믿음에 대한 이성적 이해와 종교적 훈련에 대한 수용을 위해 높은 수준의 종교교육이 청소년기에 필요하다. 이렇게 가치관이 정립되어 가는 시기에는 특정한 신앙을 갖는 것이 인간화의 과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김소야자, 1987).

왜냐면 영적 건강은 인간의 영적 본능이 최대한으로 개발되게 하는 능력으로 신(하나님, 신성, 초월적 존재, 최상의 가치), 자신, 이웃, 자연(환경)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통합, 질서, 조화, 평화를 이루는 안녕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Chapman(1986)은 영적 건강을 인간이 신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고, 사랑과 기쁨, 평화를 누리며 성취하는 것을 배우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최대한의 잠재성을 성취하도록 하는 능력을 갖는 것이라고 하였고 Ellison(1983)은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활기에 넘치고 목적적이며 충만한 느낌을 갖는다고 하였다(최상순, 1990). 또한 영적안녕은 ‘삶속의 의미와 목적’을 확인하여 ‘살아야 하는 이유

와 가치감'을 발견케 하며 신체적으로 변화된 자신의 모습과 역할 변화를 주위 상황과 관계지어서 삶의 의미를 탐색하고 아름다움, 진리 같은 가치들을 달성해 갈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영성은 수용을 의미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긍정적 사고를 강화시키며 내적 방어를 향상시키고 활성화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창조적으로 활용 할 수 있어서 내적 치유와 안녕을 촉진 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다(양복순, 1999).

최상순(1990)은 영적안녕이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신체적, 사회심리적, 영적인 면을 포함하여 다차원적이며 통합적인 건강상태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영적 안녕과 희망 사이에도 유의한 순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특히 영성은 개인적으로 삶의 위기 시에 개인의 삶에 안정감을 주는 자원으로 역할을 하며 안녕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삶의 사건들 혹은 관계에서 영적 고뇌를 이기도록 하는 촉진자적 역할을 한다(Goddard 1995).

청소년기는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도기로서 내가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어 현실사회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이 시기는 심리사회적 위기의 발달단계이다. 즉 청소년기는 자아개념이 형성되는 시기로서 자아개념을 확립하는 것은 이 시기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자아개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점의 총합으로써 그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며, 인간은 자신이 지니는 자아개념에 따라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 자아개념은 체격과 외모는 물론 행동, 신념, 개인적인 특성, 기술, 가치관, 희망 등을 포함한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지니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가치 있게 생각하여 자신감 있게 행동하게 되고, 나아가서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게 된다. 그러나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지닌 사람은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고 쓸모 없다고 생각하여 자신을

학대하고 불안정한 성격을 지니게 되어 대인관계에서도 소외되는 경향을 초래한다(김기정 역, 1996). 자아개념은 한 개인의 행동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정원식, 1985) 연구를 통해 자아개념과 적응력과의 관계가 밝혀지고 있는데(이영희, 1968; 임채현, 1977), 자아개념과 정신건강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김영환, 1969, 김학수, 1971; 곽준식, 1979; 양용재, 1981).

한편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의 행동 영역 속에서 일정 기간동안 지속되는 성격적 속성으로 환경, 사상에 의해서 통제되는 자기평가의 상태로 이해된다(김영혜, 1995). 정원식(1965)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자기를 가치있고 보람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가치에 대하여 회의적이며 자기를 무가치한 인물로 보며 자주 불안을 느끼고 우울해하며 불행스럽게 느낀다고 하였다. 자신 스스로에 대해 가치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높은 자아 존중감을 가진 사람이기에 자신과 주위환경에 대한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오늘날 청소년의 사회문제는 심각한 수위에 달하고 있으며,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발달시기를 맞이한 청소년기는 건강한 학업과 사회성 등을 성취해야 할 위치에 놓여 있으나 한번의 실수로 일생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문제점에 대한 예방과 치료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히 요망된다고 보겠다(심혜숙, 1996).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자는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과 교회 밖의 일반 청소년의 삶의 목적정도, 영적안녕 정도, 자아개념정도 자아존중감 정도를 비교하여 청소년 간호중재와 교구간호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교회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삶의 목적정도, 영적 안녕 정도, 자아개념 정도 및 자아존중감 정도를 비교하기 위함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교회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다.
- 2) 교회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삶의 목적정도, 영적안녕 정도, 자아개념 정도, 자아존중감 정도를 비교한다.
- 3) 교회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목적정도, 영적안녕 정도, 자아개념 정도, 자아존중감 정도의 차이를 비교한다.

3. 용어 정의

1) 교회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본 연구에서 교회 청소년은 M시와 P시 소재 지역교회에 출석하는 고1 학년부터 고3 학년까지의 남녀 학생을 말하고, 일반 청소년은 M시와 P시 소재 지역고교에 다니는 남녀 학생을 말한다.

2) 삶의 목적

의미에의 의지가 좌절되고 충족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실존적 공허를 극복하는 것을 지칭하며(Frankle, 1969) 본 연구에서는 Crumbaugh와 Maholick(1969)이 개발한 7점 척도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서 측정된 값을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의미와 목적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영적 안녕

영적안녕은 전인성을 양육하고 찬양하며 신, 자신, 지역사회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에서 삶에 대한 확인이다(Paloutzian & Ellison, 1982). 본 연구에서는 Paloutzian & Ellison이 개발한 도구를 최상순(1990)이 수정 보완하여 재개발한 척도로서 6점척도 10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서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 수록 영적 안녕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4) 자아개념

일반적으로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신체사항, 도덕적인 관념, 성격적인 것, 가족에 대한 것, 그리고 대인 관계에 대한 모든 면에서 자신 및 주위 환경에 대한 생각, 관념, 태도, 신념 등을 말한다(고인균, 1987). 본 연구에서는 이훈진(1997)이 개발한 척도로서 측정된 값을 말하며 5점척도,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개념이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5) 자아존중감

자신에 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자기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감정적 측면으로 자신에 대한 가치성, 사랑 및 인정을 받고 싶어 하며, 다른 사람보다 낮고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Samules, 1977).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최정훈(1972)이 번역한 5점척도, 10문항으로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II. 문헌 고찰

1. 청소년기와 삶의 목적

청소년은 아동에서 성인이 되는 중간기, 과도기를 의미하며(김종환, 1988), 제2의 탄생기, 부정기, 제2 반항기, 질풍노도 시대, 어울리지 않는 시대, 행동의 중용이 없는 시대 등으로 부르고 있다(성영혜, 1985). 청소년기는 발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체감 확립을 위한 갈등과 함께 삶은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등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고 한다(장혁표, 정용부, 1984).

삶의 의미 추구는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보편적인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동기이며 삶의 의미나 가치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고 해서 병이 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적 주체성을 자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Frankle(1967)은 주장한 바가 있다.

이 시기에 자신의 정체감과 인생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기까지는 흔히 고립감, 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러간다는 느낌, 어떤 활동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무력감 그리고 자신의 생이 우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이정화, 1986). 즉 청소년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의미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다는 허무감으로 내적인 충실감을 상실하는 것과 한 가지 일에 몰두하여 다른 것과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실존적 공허감을 경험한다(강상익, 1986).

청소년의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국내의 연구로는 정홍주(1982)는 고교생 465명에게 삶의 목적을 검사한 결과 57.4%가 실존적 공허 상태에 있었으며, 정연숙(1984)의 연구결과는 내면화된 신앙은 삶의 목적 점수를 높였고 실존적 공허 상태에 있는 교회청년이 전체집단의 27.68%이

고(남자 113.3 여자 104.8)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신앙 수준도 높아지고 삶의 의미도 충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외논문으로서는 홍콩의 초기 청소년사이에서의 삶의 의미와 적용에 관한 Daniel(1999)의 논문이 있다. 정신적 안녕과 부모 역할 행동에 대한 자각을 평가하는 다른 검사법과 삶의 목적 검사(PIL Test)의 중국 어판에 대한 378명의 청소년의 반응이 두 차례 조사되었다. 삶의 의미와 안녕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낮은 PIL 점수를 가졌던 사람들은 a)높은 수준의 정신병적 상태와 무기력, b)낮은 수준의 삶의 만족과 자아존중감을 지녔음이 밝혀졌다. 결과가 한층 더 시사했던 바는 지각된 부모 역할 행동과 청소년의 안녕 사이의 연관성은 높은 수준의 목적을 가진 사람에서 보다, 삶의 목적에 있어서 낮은 수준의 분별력을 가진 청소년에서 강했다는 것이다. 이상의 사실이 암시하는 바는 높은 수준의 삶의 목적에 대한 분별력은 부정적인 부모역할 행동이 청소년의 안녕에 미치는 충격에 대한 완충제를 제공한다(Daniel T.L.Shek,1999).

이상에서 청소년기에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 이후 삶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표들로 옮겨가게 되고 자신의 가치와 발달 가능성 등을 잘 파악하여 독립적이고 풍부한 개인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부정적일 때는 이후 삶의 목표들을 성취하지 못하고 의존적이고 부적응적인 태도와 무의미한 삶의 태도를 취하기(김영혜,1995) 때문에 청소년기의 지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2. 청소년기와 영적 안녕

청소년기의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는 도덕관이나 가치관의 수립, 나아가서는 건전한 인생관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종교

적인 문제에서도 많은 고뇌와 갈등이 생긴다. 지금까지 긍정해왔던 믿음을 과학적 관점에서 비판을 가하기도 하며 가족의 종교를 거부할 수도 있다. 청소년은 신앙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 친구나 자신이 찬양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또한 나름대로의 종교적 체험을 갖기도 한다. 이것은 어떤 종교를 따르겠다는 정신적인 결단일 뿐 아니라 감정적인 결단이기도하며, 단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초자연적인 힘을 발견하거나, 자신보다 강한 존재에게 의지할 수 있는 청소년은 신체적, 정서적 성장이 있는 이 격동의 시기에 많은 위안을 찾을 수 있다. 또래와 집단의 지배를 받는 이 시기에 교회는 친구를 만나고 우정을 나누며 학교에서는 찾기 어려운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곳이 된다. 하나님을 믿는 청소년은 금지된 행동을 실험해 보는 일이 적다.

종교적 경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깊은 존중과 만족으로 말미암아 더욱 풍부하게 된다. 종교적인 각성이 성숙기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과 감수성이 경험을 더 풍부하게 하여주고 모든 가치를 더 심오하게 평가하도록 하여 주기 때문이다.

종교는 가치감, 인격적인 관계, 의무의 감각을 형성케 한다. 종교는 충동과 갈망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며 건전한 정신상태를 가지는 데도 도움이 된다. 찬양, 기도, 그 밖의 다른 예배 요소가 생을 깊게 하고 풍부하게 하며 건전성과 행복에 기여하는 점이 많다.

종교적 심성을 가진 청소년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도덕적, 종교적 지도를 받지 못하면 위기가 생기고 신앙을 부정하기도 한다. 믿음에 대한 이성적 이해와 종교적 훈련에 대한 수용을 위해 높은 수준의 종교교육이 청소년 초기에 필요하다. 이렇게 가치관이 정립되어 가는 시기에는 특정한 신앙을 갖는 것이 인간화의 과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철학적인 종교나 형식적인 교리에는 관심이 없고, 행동하는 종교를 원한다. 즉 자기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자기의 갈망을 만족시켜 주며 자기의 이상적인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종교를 원하는 것이다.

Frankl이 가장 강조하는 것도 역시 영적 차원이다. 인간은 신체나 정신을 가진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Tweedie, 1972). 이 영적인 차원이 동물과 인간을 구별하며 인간은 영적인 차원에서 자신을 초월함으로 비로소 인간 됨이 나타난다.

Banks(1980)는 영적 영역의 4가지 측면을 서술하였다. 첫째로, 영적 영역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영역을 통합하는 통일된 힘이다. 둘째로, 영적 영역은 인간으로 하여금 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한다. 또한 인간의 삶이 성취되게 하는 내적인 힘이다. 셋째로 영적 영역은 개인을 초월하여 신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 또는 우주적인 힘과 유대감을 갖게 한다. 넷째로, 영적 영역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개인의 인지와 신앙을 갖게 한다. 따라서 Banks(1980)는 영적 영역을 자신과 환경에 관련하여 존재에 대한 의미를 찾는 의식적, 무의식적 믿음으로 특징지었다. 또한 Hiatt(1986)도 영적 영역은 통합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사물에 궁극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며 경험적이고 유동적이며, 발전적이고 어떤 지점을 향해 움직이는 직관이라고 서술하였다(최상순, 1990).

영적 건강은 인간의 영적 본능이 최대한으로 개발되도록 하는 능력으로 신(하나님, 신성, 초월적 존재, 최상의 가치), 자신, 이웃, 자연(환경)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통합, 질서, 조화, 평화를 이루는 안녕의 상태이다. 이에 대해 Chapman(1986)은 영적 건강을 인간이 신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고, 사랑과 기쁨, 평화를 누리며 성취하는 것을 배우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최대한의 잠재성을 성취하도록 하는 능력을 갖는 것

이라고 하였고 Ellison(1983)은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활기에 넘치고 목적적이며 충만한 느낌을 갖는다고 하였다(최상순,1990).

영성의 의미가 종교적인 것이든 인본주의적인 것이든 영성은 모든 인간의 내부에 존재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인간은 무의식적인 신이 되든, 창조된 존재가 되든 혹은 개인적으로 특별한 신이 되든 간에 관계없이 예배할 대상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신뢰, 희망, 의미, 사랑과 용서와 같은 삶의 최상의 가치를 완성하도록 추구한다(Stoll, 1989).

영성은 전인건강운동의 상징으로서 이 운동은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시작되어 강조되었으며 개인은 자신의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개인의 영적인 차원은 이러한 치유과정에 필수적인 것이다(Goodloe & Arreola, 1992)

지금까지 영적 차원의 타당성은 계속 무시되어져 왔으나 최근 건강교육 전문가에 의해서 점점 강조되고 있으며 영적인 측면의 고려가 건강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안녕(Well-being)의 중요한 측면으로서 많은 관심을 주어야 한다(Goodloe & Arreola, 1992).

영적안녕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확인하여 '살아야 하는 이유와 가치감'을 발견케 하며 신체적으로 변화된 자신의 모습과 역할 변화를 주위 상황과 관계지어서 삶의 의미를 탐색하고 아름다움, 진리 같은 가치들을 달성해 갈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영성은 수용을 의미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긍정적 사고를 강화시키며 내적 방어를 향상시키고 활성화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창조적으로 활용 될 수 있어서 내적 치유와 안녕을 촉진 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다(양복순, 1999).

최상순(1990)의 일, 지역, 성인의 영적안녕, 희망 및 건강상태에 관한 관계연구에서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신체적, 사회 심리적, 영적인 면을 포함하여 다차원적이며 통합적인 건강상태는 영적 안녕과 의미 있는 순상관 관계를 나타냈으며 영적 안녕과 희망 사이에도 의미있는

순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암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영적 간호중재가 암환자의 통증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김효빈(1988)의 논문에서 영적 간호중재를 받은 암환자의 동통과 우울 정도가 감소하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가 영적 고뇌를 인식하여 경청, 정성어린 돌봄, 같이 있어줌, 비평하지 않는 대화로 환자를 상대해줌으로써 그들이 주어진 상황에 집중하게 되어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이나 개인적인 고통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해줄 때 암 선고를 받고 동통으로 괴로워하며 우울한 환자조차도 직면한 삶의 변화를 더 잘 수용하여 우울이 감소된다. 즉 영성은 개인적으로 삶의 위기 시에 개인의 삶에 안정감을 주는 자원으로 역할을 하며 안녕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삶의 사건들 혹은 관계에서 영적 고뇌를 이기게 하는 촉진자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Goddard 1995).

따라서 청소년기에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며 특별한 도덕적 명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교육받은 청소년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보다 잘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3. 청소년기와 자아개념

자아개념에 대한 논의는 '개인으로서의 자신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전제로 하는 총체적 영상이다. 자아개념과 동의어로 볼 수 있는 것은 자아, 자신, 자아지식, 자아정체, 자기이해, 자아상, 자아존중감, 현상적 자아 등이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아개념이란 용어는 불분명하게 개념화되었다(Burns, 1979). 자아개념은 자아존중감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자아개념이 긍정적일수록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수용적이며, 자아개념이 부정적일수록 자기자신을 업신여기며 배척한다(정원

식,1968). 자아개념은 자신을 대상으로 볼 때 자신에 대해 갖는 개인의 인지와 감정의 총체(Rosenberg, 1979)이므로 자아존중감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아개념은 자신을 하나의 대상으로 관찰하고 사정한 결과에 의해 형성된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이는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개인의 관찰 및 자신의 태도, 외모, 수행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 달라진다(Taft, 1985). 전병재(1972)는 자아개념을 인지적 자아(perceptual self)와 평가적 자아(self esteem)로 구분하고 인지적 자아는 주로 개인이 사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에 관한 것이고, 평가적 자아는 “나는 착한 사람이다”와 같이 자신을 평가적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인지적 자아는 다양한 역할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기술적인 면(description)이며, 평가적 자아는 역할 수행의 만족도에 따라 개인이 가지는 평가적 태도라고 하였다(박소연, 1993).

자아개념은 한 개인의 행동과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정원식, 1985), 자아개념의 긍정적인 측면을 적용, 부정적인 측면을 불안이라 할 수 있다(김인자, 1985). 만일 한 개인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고 있으면 자기 자신을 쓸모 있고 유능하며 가치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생활과 대인관계에서 잘 적응해 나가며 자아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반대로 부정적 자아개념을 갖고 있으면 자기자신을 쓸모 없고 무가치하며 악하다고 생각하여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정선아, 2001).

연구를 통해 자아개념과 적응력과의 관계를 밝히고 있으며(이영희, 1968; 임채현, 1977), 자아개념과 불안 수준, 심리적 갈등과 죄책감과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아개념과 정신건강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김영환, 1969, 김학수, 1971; 곽준식, 1979; 양용재, 1981).

4. 청소년기와 자아 존중감(Self-esteem)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자기 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Rosenberg, 1979).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여러 종류의 유사한 용어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숙(1994)은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을 표현하는 용어가 자신감, 자존심, 자긍심 등으로 쓰이고 있고, 국외의 경우에도 자기 사랑(self-love), 자기신념(self-confidence), 자기존경(self-respect), 자기수용(self-acceptance), 자기만족(self-satisfaction), 자기평가(self-evaluation), 자기비평(self-appraisal), 자기가치(self-worth), 자아강도(self-strength), 자기고려(self-regard)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된다고 하였다.

인간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차원으로 대별하여 이해할 수 있으며, 이중 영적 차원에 자아존중감이 포함된다. 자아존중감이란 자기가 자신의 존재를 수용하고 존중하며 자신의 존재와 본질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도복늬외, 1990).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을 승인적 태도나 혹은 부정적 태도를 표시하고 개인이 그 자신을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가 있다고 믿는 정도라고 정의하면서 자아존중감은 개개인의 환경에서 중요한 타자들, 즉 부모, 교사, 친구들의 태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정원식(1968)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자기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게 된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 가치에 대하여 회의적이며 자기를 무가치한 인물로 보며 불안을 느끼고 우울해하며 불행하게 느끼므로써 행동도 불안정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신 스스로에 대해 가치

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이기에 자신과 주위환경에 대한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중재연구로서 이길자(1998)는 집단 의사소통 프로그램이 정신 질환자 어머니 집단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했고, 박현숙(1994)은 집단 인지요법이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었음을 보고하였고, 김선남(1981)은 T-집단경험이 중학생의 자아개념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최웅, 유재만, 홍경자(1980)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이 자기개념의 증진을 가져왔음을 보고하였으며, 김영혜(1995)는 의미요법 집단상담이 미혼여성의 자아존중감을 상승시켰다고 보고한 바 있다.

청소년기는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도기로서 내가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어 현실사회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이 시기는 심리사회적 위기의 발달단계로서 Watkins(1980)는 자아존중감의 수준은 한 개인이 사회적 행동의 역할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보았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자는 열등감, 죄악감이 저변에 깔려 있으므로 이러한 감정을 처리하는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교회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삶의 목적정도, 자

아개념 정도, 자아존중감 정도 및 영적 안녕 정도를 비교하는 서술적 비교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P시와 M시 소재 지역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고등부 학생인 교회 청소년과 P시와 M시 소재 고교에 재학중인 일반 청소년 총 21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 1) 본 연구 목적에 동의하고 연구에 협조하기를 허락한 자
- 2) 정신질환자가 아닌 사람
- 3)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1999년 11월 7일부터 2000년 3월 12일 까지였고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대상자에게 배부한 후 기입하여 작성한 후 회수하였다.

4. 연구 도구

1) 삶의 목적 정도 척도(PIL)

PIL척도는 Frankl이 말하는 삶의 의미와 목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Crumbaugh와 Maholick(1969)가 제작한 것을 남궁달화(1980)가 번안한 척도로서 일명 Purpose in Life(PIL)라 한다. PIL은 7점척도로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 20점에서 최고 140점까지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목적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며 점수

가 낮을수록 삶의 목적정도가 낮은 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14$ 이다.

2) 영적 안녕 척도

영적 안녕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Paloutzian & Ellison이 개발한 척도를 최상순(1990)이 번안한 것으로 6점척도이며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을 합하여 10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직적 영역인 종교적 안녕 점수만을 사용하며 종교적 안녕 점수가 높을수록 더욱 안녕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7$ 이다.

3) 자아개념 척도

자아개념 척도는 이훈진, 원호택(1995)이 개발한 척도를 이훈진(1997)이 수정 보완한 것으로 5점척도 30문항으로서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개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4$ 이다.

4) 자아 존중감 척도

Rosenberg가 개발한 측정도구로서 최정훈(1972)이 번역한 것이며 5점척도, 10문항으로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34$ 이다.

5.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에 따라 SPSS/PC 10.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 1) 교회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X²-test로 분석하였다.
- 2) 교회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삶의 목적정도, 자아개념 정도, 자아 존중감 정도, 영적 안녕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하였다.
- 3) 교회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목적정도, 자아개념 정도, 자아존중감 정도, 영적안녕 정도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대상은 P시와 M시에 소재한 지역사회의 고교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IV. 연구 결과

1. 교회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비교

연구대상자는 총 215명으로 교회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두 집단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유사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X²-test로 분석하였다. 성별은 교회 청소년이 남자가 75.4%, 여자가 24.6%로 나타났고, 일반 청소년은 남자가 89.4%, 여자가 10.6%로 나타났다. 가족 수에서는 교회 청소년이 4명이 51.5%, 5명이 22.3%로 나타났으며, 일반 청소년은 4명이 62.4%, 5명이 18.8%로 나타났다. 가정의 생활 수준은 교회 청소년이 보통이다가 70.8%로 일반 청소년이 77.6%로 높게 나타났다. 주택의 소유는 교회 청소년이 자가 62.3%로 일반 청소년이 자가 68.2%로 높

게 응답했다. 부모님의 종교는 교회 청소년이 기독교가 69.2%로 일반 청소년이 불교가 49.4%로 나타났다. 가정의 분위기는 교회 청소년이 화목이 60.8%로 일반 청소년이 화목이 60%로 나타났다. 대학진학 동기는 교회 청소년이 자아 능력 개발이 47.7%, 일반 청소년이 자아 능력 개발이 47.1%로, 취직하기 쉬워서 34.1%로 응답했다. 신앙이 자기 삶에 미치는 정도는 교회 청소년은 상이 49.2%, 일반 청소년은 하가 48.2%로 응답했다. 나의 일상생활에 대한 신의 주관은 교회 청소년은 항상 그렇다가 39.2%, 대부분 그렇다가 36.2%이며, 일반 청소년은 전혀 그렇지 않다 41.2%, 대부분 그렇지 않다가 24.7%로 나타났다. 신앙생활이나 종교가 나에게 도움이 됨은 교회 청소년은 항상 그렇다가 39.2%, 대부분 그렇다가 38.5%를 차지했으며, 일반 청소년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48.2%로 응답했다. 종교 서적 탐독 횟수는 교회 청소년은 볼 때도 안 볼 때도 있다가 48.5%, 일반 청소년은 전혀 보지 않는다가 44.7%로 나타났다. 종교 생활의 필요성은 교회 청소년은 꼭 필요하다는 70%였으며 일반 청소년은 가끔 필요하다는 51.8%로 비교적 높게 응답했다. 종교의식 참여 횟수는 교회 청소년은 대부분 참석하는 편이 63.1%로 일반 청소년은 거의 참석하지 않는다가 41.2%로 전혀 하지 않는다가 31.8%로 나타났다. 자신의 신앙 문제의 상담 대상자는 교회 청소년은 친구가 43.1% 부모님이 28.5%로 일반 청소년은 부모님이 43.5%로 나타났다. 부모님과의 세대 정도 차는 교회 청소년은 보통이다가 53.8%, 보통이다가 65.9%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기성 세대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회 청소년은 이해나 인식 부족이 48.5%, 일반 청소년은 이해나 인식부족이 54.1%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다른 일반적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1) 참조.

〈표1〉교회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구분	교회청소년(N=130)	일반 청소년(N=85)	X ²	p
		실수(%)	실수(%)		
가족 수	2명	3(2.3)	1(1.2)	18.305	.306
	3명	22(16.9)	9(10.6)		
	4명	67(51.5)	53(62.4)		
	5명	29(22.3)	16(18.8)		
	기타	9(6.9)	6(7.1)		
가정의 생활수준	잘 사는 편	11(8.5)	15(17.6)	12.665	.980
	보통이다	92(70.8)	66(77.6)		
	못 사는 편	27(20.7)	13(15.3)		
주택소유	자가	81(62.3)	58(68.2)	9.015	1.000
	전세	40(30.8)	21(24.7)		
	기타	9(6.9)	6(7.2)		
부모님의 종교	기독교	90(69.2)	7(8.2)	12.250	.907
	불교	21(16.2)	42(29.4)		
	천주교	1(0.8)	10(11.8)		
	기타	18(13.8)	16(30.6)		
대학진학동기	취직하기 쉬워서	33(25.4)	29(34.1)	7.832	.551
	부모님의 권유	20(15.4)	11(12.9)		
	학문의 열정	15(11.5)	5(5.9)		
	자아능력개발	62(47.7)	40(47.1)		
가정의분위기	대단히 화목	11(8.5)	16(18.8)	6.288	.711
	화목	79(60.8)	51(60.0)		
	그저 그렇다	37(28.5)	16(18.8)		
	불우하다	2(2.3)	2(2.4)		
신앙의 영향	상	64(49.2)	7(8.2)	3.015	.555
	중	60(46.2)	37(43.5)		
	하	6(4.6)	41(48.2)		
종교나 신의 의미	있다	122(93.8)	32(37.6)	.602	.438
	없다				
종교생활의 필요성	꼭 필요	91(70.0)	44(51.8)	4.948	.551
	가끔 필요	35(26.9)	11(12.9)		
	잘 모르겠다.	4(3.1)	30(35.3)		
성별	남	98(75.4)	76(89.4)	16.910	.000*
	여	32(24.6)	9(10.6)		

〈표1〉 계속

일반적 특성	구분	교회 청소년(N=130) 일반 청소년(N=85)		X ²	p
		실수(%)	실수(%)		
종교의 도움여부	항상 그렇다	51(39.2)	5(5.9)	20.976	.179
	대부분 그렇다	50(38.5)	8(38.5)		
	약간 그렇다	24(18.5)	29(34.1)		
	대부분 그렇지 않다.	3(2.3)	2(2.4)		
	전혀 그렇지 않다.	2(1.5)	41(48.2)		
일상의 신의 주관	항상 그렇다	51(39.2)	4(4.7)	16.285	.433
	대부분 그렇다	47(36.2)	7(8.2)		
	약간 그렇다	21(16.2)	18(21.2)		
	대부분 그렇지 않다.	9(6.9)	21(24.7)		
	전혀 그렇지 않다	2(1.5)	35(41.2)		
종교서적탐독정도	날마다 대부분보는편	42(32.3)	1(1.2)	13.007	.369
	볼때도,안볼때도있다	63(48.5)	13(15.1)		
	거의 보지 않는다.	19(14.6)	33(38.8)		
	전혀보지않는다.	6(4.6)	38(44.7)		
종교의식 참여정도	항상참석	22(16.9)	1(1.2)	11.834	.459
	대부분참석	63(48.5)	13(15.1)		
	때때로참석	20(15.4)	4(6.5)		
	거의 하지 않는다.	6(4.6)	62(73.0)		
부모님과 세대차의 정도	아주않다	13(10.0)	3(3.5)	5.805	.759
	않다	38(29.2)	20(23.5)		
	보통	70(53.8)	56(65.9)		
	없다	9(6.9)	6(7.1)		
	신상문제 상담자	부모님	37(28.5)		
선생님	5(3.8)	2(2.4)			
친구	56(43.1)	37(43.5)			
기타	32(24.6)	9(10.6)			

*P<0.05 **P<0.01 ***P<0.001

2. 교회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삶의 목적정도, 자아개념 정도, 자아 존중감 정도, 영적 안녕 정도 비교

교회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삶의 목적정도, 자아개념 정도, 자아 존중감 정도, 영적 안녕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표 2>와 같다.

삶의 목적 정도는 교회 청소년이 평균 88.96이었고 일반 청소년이 83.62로서 교회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들보다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 -2.759, P = .006$).

영적 안녕 정도는 교회 청소년이 평균 47.30이었고 일반 청소년이 31.88로서 교회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들보다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 -11.082, P = .000$).

자아개념 정도는 교회 청소년이 평균 106.82이었고 일반 청소년이 107.64로서 교회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들보다 더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 = .421, P = .674$).

자아 존중감 정도는 교회 청소년이 평균 37.75이었고 일반 청소년이 38.07로서 교회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들보다 더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 = .372, P = .710$).

따라서 교회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삶의 목적정도와 영적 안녕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다<표2>.

〈표2〉 교회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삶의목적,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영적안정도 비교

	교회 청소년(N=130)		일반 청소년(N=85)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삶의 목적정도	88.96	13.03	83.62	15.08	-2.759	.006*
자아개념 정도	106.82	13.18	107.64	15.05	4.21	.674
자아 존중감 정도	37.75	5.95	38.07	6.33	3.72	.710
영적 안녕 정도	47.30	8.45	31.88	11.74	-11.082	.000*

*P<0.05 **P<0.01 ***P<0.001

3. 교회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목적 정도, 자아개념 정도, 자아 존중감 정도, 영적 안녕 정도 비교

1) 교회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삶의 목적 정도와 유의한 일반적 특성

교회 청소년의 삶의 목적 정도에 유의한 일반적 특성은 나의 일상생활에 대한 신의 주관(F=5.513, p= .000), 종교 서적 탐독 횟수(F=7.623, p= .000), 종교 생활의 필요성 (F=7.872, p= .001), 신앙이 자기 삶에 미치는 영향(F=5.175, p= .002), 묵상이나 명상 기도의 횟수(F=4.635, p= .002), 신급(F=4.489, p= .005), 신앙생활이나 종교의 도움(F=3.055, p= .019), 기성세대와의 가장 큰 문제점(F=2.885, p= .025), 종교 의식 참여 횟수(F=3.202, p= .026)이다.

일반 청소년의 삶의 목적 정도에 유의한 일반적 특성은 종교 서적 탐독 횟수(F=7.144, p= .000), 종교 의식 참여 횟수(F=5.577, p= .001), 신앙이 자기 삶에 미치는 영향(F=8.064, p= .001), 신앙생활이나 종교의 도움 여부(F=4.142, p= .004), 나의 일상생활에 대한 신의 주관(F=3.914, p= .006), 부모님의 종교(F=3.049, p= .014), 가정의 분위기(F=3.650, p= .016), 가정생활 수준(F=2.544, p= .035), 대학의 진학 동

기($F=2.744, p=.048$)이다. 표 <3-1> 참조.

2) 교회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영적안녕 정도와 유의한 일반적 특성

교회 청소년의 영적 안녕 정도에 유의한 일반적 특성은 신앙이 자기 삶에 미치는 영향($F=20.598, p=.000$), 나의 일상생활에 대한 신의 주관($F=14.702, p=.000$), 종교나 신의 의미($t=4.900, p=.000$), 종교 의식 참여 횟수($F=8.779, p=.000$), 신앙생활의 의견($F=7.139, p=.000$), 종교 생활의 필요성($F=19.201, p=.000$), 묵상이나 명상 기도의 횟수($F=9.723, p=.000$), 종교 서적 탐독 횟수($F=3.856, p=.005$), 대학 진학 동기($F=2.886, p=.038$)이다.

일반 청소년의 영적 안녕 정도에 유의한 일반적 특성은 신앙이 자기 삶에 미치는 영향($F=19.931, p=.000$), 나의 일상생활에 대한 신의 주관($F=22.927, p=.000$), 신앙생활이나 종교의 도움 여부($F=12.649, p=.000$), 종교 의식 참여 횟수($F=7.755, p=.000$), 종교 서적 탐독 횟수($F=7.057, p=.000$), 종교 생활의 필요성($F=14.444, p=.000$), 자신의 종교($F=.318, p=.008$), 부모님의 종교($F=2.638, p=.030$), 자신의 신앙 문제의 상담자($F=2.840, p=.030$)이다. 표 <3-2> 참조.

3) 교회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자아개념 정도와 유의한 일반적 특성

교회 청소년의 자아개념 정도에 유의한 일반적 특성은 가정의 분위기($F=7.296, p=.000$), 대학 진학 동기($F=4.383, p=.006$), 자신의 신앙 문제의 상담 대상자($F=3.206, p=.006$), 종교 생활의 필요성($F=4.289, p=.016$), 부모님과 의 세대 차의 정도($F=3.549, p=.016$), 교회 다니게 된 동기($F=2.849, p=.018$)이다.

일반 청소년의 자아개념 정도에 유의한 일반적 특성은 가정의 분위기($F=4.949, p=.003$)이다 <표3-3> 참조.

4) 교회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정도와 유의한 일반적 특성

교회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정도에 유의한 일반적 특성은 신앙생활이나 종교의 도움 ($F=3.628, p=.008$), 가정의 분위기($F=3.288, p=.023$), 대학 진학 동기($F=2.795, p=.043$)이다.

일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일반적 특성은 부모님과 의 세 대차($F=3.289, p=.025$), 가정의 분위기($F=2.810, p=.045$)이다. <표 3-4> 참조.

교회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삶의 목적, 영적안녕, 자아개념 및 자아 존중감 비교

〈표3-1〉 교회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삶의 목적에 유의한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구분	교회 청소년(N=130)			일반 청소년(N=85)		
		삶의 목적 M±SD	t or F	p	삶의 목적 M±SD	t or F	p
가족 수	2명	84.00±3.61	2.763	.030*	57.00	2.441	.053
	3명	92.86±10.86			88.44±21.83		
	4명	90.39±13.31			80.91±12.46		
	5명	82.55±13.88			88.69±9.05		
	기타	91.11±8.05			91.33±27.94		
가정의 생활수준	잘 사는 편	92.10±13.37	.530	.753	93.40±29.78	2.544	.035*
	보통이다	89.08±13.19			84.82±12.48		
	못 사는 편	88.29±13.65			76.18±16.63		
주택소유	자가	88.68±13.82	.347	.910	83.14±14.55	1.220	.305
	전세	88.09±12.59			88.50±15.78		
	기타	88.00±13.14			73.50±17.68		
부모님의 종교	기독교	88.38±14.45	.351	.843	90.88±21.89	3.049	.014*
	불교	91.24±8.04			79.33±12.57		
	천주교	82.00			90.38±8.52		
	기타	90.19±10.86			84.00±3.92		
대학진학동기	취직하기 쉬워서	87.18±10.92	2.666	.051	78.52±14.44	2.744	.048*
	부모님의 권유	82.95±15.52			81.00±12.64		
	학문의 열정	93.13±12.47			94.00±13.58		
	자아능력개발	90.84±12.81			86.75±15.32		
가정의분위기	대단히 화목	85.27±13.93	1.549	.205	89.63±23.16	3.650	.016*
	화목	90.81±13.61			85.00±10.64		
	그저 그렇다	86.73±10.72			75.06±13.73		
신앙의 영향	불우하다	81.33±17.04			69.00±16.97		
	상	93.30±13.28	5.175	.002*	103.86±26.93	8.064	.001*
	중	84.97±11.32			81.35±12.10		
종교나 신의	하	83.00±14.21			82.22±12.58		
	의미있다	89.36±13.09	1.369	.173	86.91±18.26	2.476	.119
	없다	82.88±11.06			81.64±12.56		
종교생활의 필요성	꼭 필요	91.76±12.75	7.872	.001*	88.10±19.40	.743	.529
	가끔 필요	82.09±11.36			84.00±15.58		
	잘 모르겠다.	85.50±12.48			81.05		

〈표 3-1〉 계속

일반적 특성	구분	교회 청소년(N=130)		일반 청소년(N=85)	
		삶의 목적 M±SD	t or F p	삶의 목적 M±SD	t or F p
종교의 도움여부	항상 그렇다	92.49±13.83	3.055 .019*	104.40±32.68	4.142 .004*
	대부분 그렇다	89.18±12.45		90.25±9.02	
	약간 그렇다	82.25±10.36		79.38±12.26	
	대부분 그렇지 않다.	85.67±4.16		93.00±11.31	
	전혀 그렇지 않다.	79.00±16.97		82.34±12.88	
일상의 신의 주관	항상 그렇다	94.29±12.23	5.513 .000**	109.75±35.12	3.914 .006*
	대부분 그렇다	86.49±13.44		88.00±6.90	
	약간 그렇다	87.67±8.88		81.22±11.24	
	대부분 그렇지 않다.	80.75±13.23		81.57±13.34	
	전혀 그렇지 않다	91.00±		82.23±13.58	
종교서적탐독정도	날마다 대부분 보는편	92.12±12.08	7.623 .000**	140.00	7.144 .000**
	볼때도 안볼때도 있다	89.70±12.38		87.08±18.55	
	거의 보지 않는다.	76.32±10.71		79.30±12.91	
	전혀 보지 않는다.	86.00±13.31		84.71±12.34	
종교의식 참여정도	항상 참석	92.95±12.33	3.202 .026*	140.00	5.577 .001*
	대부분 참석	89.89±13.22		91.00±21.19	
	때때로 참석	83.70±11.67		77.93±13.21	
	거의 하지 않는다.	79.17±9.00		82.09±12.41	
부모님과 세대차의 정도	아주 많다	83.23±14.28	1.496 .219	89.67±7.77	2.374 .076
	많다	87.76±11.41		76.85±13.59	
	보통	90.10±13.51		84.80±13.65	
	없다	93.44±12.67		92.17±27.10	
신상문제 상담자	부모님	89.22±13.48	1.864 .092	87.14±17.13	.913 .460
	선생님	96.00±9.46		84.00±28.28	
	친구	87.43±12.51		80.62±13.37	
	기타	89.31±10.84		81.67±7.42	

*P<0.05 **P<0.01 ***P<0.001

〈표 3-2〉 교회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영적 안녕 정도와 유의한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구분	교회 청소년(N=130)			일반 청소년(N=85)		
		영적안녕 M±SD	t or F	p	영적안녕 M±SD	t or F	p
가족 수	2명	41.33±4.62	1.462	.2118	10.00	.983	.422
	3명	50.09±6.93			32.22±12.57		
	4명	47.37±9.25			32.67±10.58		
	5명	46.72±6.58			30.50±11.79		
	기타	43.38±10.78			32.00±20.45		
가정의 생활수준	잘 사는 편	47.50±8.83	.578	.717	35.40±15.57	1.415	.228
	보통이다	47.58±8.09			31.17±11.44		
	못 사는 편	47.10±9.89			33.73±10.58		
주택소유	자가	47.70±8.28	.291	.940	31.84±11.72	1.852	.100
	전세	46.19±9.49			30.80±10.93		
	기타	45.60±3.29			32.00±2.83		
부모님의 종교	기독교	47.65±8.16	.437	.782	44.29±15.38	2.638	.030*
	불교	45.67±9.75			30.70±10.25		
	천주교	40.00			35.30±9.31		
	기타	47.94±7.86			34.00±7.48		
대학진학동기	취직하기 위해서	43.25±9.40	2.886	.038*	31.75±11.52	1.462	.231
	부모님의 권유	47.80±10.88			29.82±14.06		
	학문의 열정	49.16±6.95			22.80±10.80		
	자아능력개발	46.09±8.49			33.76±15.32		
가정의분위기	대단히 화목	48.55±7.89	1.976	.121	31.63±15.55	.552	.648
	화목	43.55±12.17			32.92±10.93		
	그저 그렇다	41.67±10.69			29.73±9.04		
	불우하다	46.24±7.86			24.50±20.51		
신앙의 영향	상	51.72±6.62	20.598	.000**	51.29±8.98	19.931	.000**
	중	43.49±7.25			33.69±10.56		
	하	34.20±8.67			26.90±8.98		
종교나 신의 의미	있다	48.17±7.83	.127	.000**	37.941±7.47	.022	.881
	없다	34.25±6.90			38.15±5.60		
종교생활의 필요성	꼭 필요	49.98±7.17	19.201	.000**	45.50±12.31	14.444	.000**
	가끔 필요	41.23±8.37			34.22±10.06		
	잘 모르겠다.	40.25±4.11			26.10±7.69		

〈표 3-2〉 계속

일반적 특성	구분	교회 청소년(N=130)			일반 청소년(N=85)		
		영적안녕 M±SD	t or F	p	영적안녕 M±SD	t or F	p
종교의 도움여부	항상 그렇다	52.72±6.77	19.841	.000**	50.80±17.30	12.649	.000**
	대부분 그렇다	46.06±6.99			45.25±6.41		
	약간 그렇다	41.58±6.26			32.18±9.00		
	대부분 그렇지 않다	38.33±2.52			34.50±4.95		
	전혀 그렇지 않다.	35.33±16.97			26.36±8.94		
일상의 신의 주관	항상 그렇다	51.58±7.58	14.702	.000**	50.80±17.30	3.914	.006*
	대부분 그렇다	47.51±6.31			45.25±6.41		
	약간 그렇다	39.88±7.90			32.18±9.00		
	대부분 그렇지 않다.	36.75±4.72			34.50±4.95		
	전혀 그렇지 않다	28			26.36±8.94		
종교서적탐독정도	남마다대부분보는편	51.71±9.05	5.518	.000**	50.23±11.53	7.057	.000**
	볼때도,안볼때도있다	47.37±8.05			40.23±11.53		
	거의 보지 않는다.	41.79±7.90			32.55±11.49		
	전혀보지않는다.	40.33±5.57			27.62±9.46		
		28					
종교의식 참여정도	항상참석	92.95±12.33	3.202	.026*	51.75±12.31	7.755	.000**
	대부분참석	89.89±13.22			43.75±7.02		
	때때로참석	83.70±11.67			34.07±13.21		
	거의 하지 않는다.	79.17±9.00			25.08±9.53		
		28					
부모님과 세대차의정도	아주많다	47.92±6.56	2.559	.058	34.33±8.96	.180	.910
	많다	44.66±8.70			30.32±12.12		
	보통	48.99±8.24			32.33±10.89		
	없다	44.67±9.19			31.40±21.65		
		28					
신상문제 상담자	부모님	47.27±8.29	2.559	.058	31.89±12.94	2.840	.030*
	선생님	54.00±8.22			24.50±6.36		
	친구	45.84±8.49			33.08±9.16		
	기타	46.50±7.79			18.80±12.76		
		28					

*P<0.05 **P<0.01 ***P<0.001

(3-3) 교회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유의한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구분	교회 청소년(N=130)			일반 청소년(N=85)		
		자아개념	t or F	p	자아개념	t or F	p
		M±SD			M±SD		
가족 수	2명	106.67±13.87	2.695	.034*	93.00	1.042	.391
	3명	113.23±14.12			104.11±20.64		
	4명	105.04±11.53			107.231±14.51		
	5명	103.93±14.17			108.13±11.74		
	기타	113.67±14.40			117.67±18.25		
가정의 생활수준	잘 사는 편	114.20±13.98	2.028	.079	113.00±19.26	1.351	.252
	보통이다	107.32±12.70			108.58±14.40		
	못 사는 편	103.90±13.25			99.27±16.04		
주택소유	자가	107.81±13.68	1.334	.247	108.62±14.32	1.207	.312
	전세	105.19±12.02			109.15±16.41		
	기타	105.00±7.38			89.00±14.14		
부모님의 종교	기독교	107.20±13.22	1.131	.345	101.14±27.10	.358	.876
	불교	109.57±12.17			79.98±12.75		
	천주교	103.00			88.80±10.27		
	기타	102.94±14.35			81.60±7.09		
대학진학동기	취직하기 쉬워서	104.27±13.08	4.383	.006*	101.69±14.58	2.494	.066
	부모님의 권유	99.45±11.24			108.82±17.21		
	학문의 열정	112.40±16.02			112.00±14.61		
가정의 분위기	자아능력개발	109.19±12.02			111.08±14.00		
	대단히 화목	113.82±16.91	7.296	.000**	115.50±18.50	4.949	.003*
	화목	109.27±12.71			108.75±12.66		
	그저 그렇다	101.03±9.66			98.06±13.96		
신앙의 영향	불우하다	88.00±11.53			93.00±		
	상	108.59±11.15	1.758	.159	114.29±23.63	2.476	.090
	중	104.23±14.31			108.78±13.47		
종교나신의 의미	하	114.40±19.98			105.46±14.65		
	있다	106.59±12.94	1.393	.240	107.00±17.63	.090	.764
	없다	110.25±17.10			108.02±13.42		
종교생활의 필요성	꼭 필요	108.18±12.63	4.289	.016*	111.10±18.09	.364	.79
	가끔 필요	102.06±13.28			107.25±14.88		
잘 모르겠다.		117.50±14.48			108.50±16.27		

(표 3-3) 계속

일반적 특성	구분	교회 청소년(N=130)			일반 청소년(N=85)		
		자아개념	t or F	p	자아개념	t or F	p
		M±SD			M±SD		
종교의 도움여부	항상 그렇다	108.47±11.25	1.996	.99	123.50±29.76	2.416	.055
	대부분 그렇다	107.96±13.31			110.14±8.97		
	약간 그렇다	100.17±14.51			103.61±13.23		
	대부분 그렇지 않다	109.00±13.53			106.43±11.99		
	전혀 그렇지 않다	112.50±28.99			108.11±15.95		
일상의 신의 주관	항상 그렇다	108.06±10.88	.447	.774	122.80±25.82	1.860	.126
	대부분 그렇다	106.09±13.82			110.25±8.31		
	약간 그렇다	106.62±17.14			104.83±14.31		
	대부분 그렇지 않다	106.09±13.82			98.00±18.38		
	전혀 그렇지 않다	112.50±28.99			107.73±14.31		
종교서적탐독정도	날마다 대부분 보는편	111.88±12.87	4.414	.002*	140.00	2.380	.076
	볼때도, 안볼때도있다	108.13±12.37			105.46±16.14		
	거의 보지 않는다.	96.16±14.6			107.82±13.42		
	전혀보지않는다.	110.00±10.20			107.21±15.24		
종교의식 참여정도	항상참석	107.14±14.86	.104	.958	140.00	1.886	.121
	대부분참석	107.13±12.09			110.25±19.20		
	때때로참석	105.70±16.84			102.50±16.68		
	거의 하지 않는다.	105.00±9.84			108.51±12.43		
부모님과세대차의정도	아주많다	96.85±13.93	3.549	.016*	111.33±28.36	2.470	.068
	많다	106.42±12.25			100.55±14.74		
	보통	108.10±12.42			109.05±13.73		
	없다	112.89±16.32			116.17±16.27		
신상문제 상담자	부모님	110.54±10.77	3.206	.006*	111.68±14.70	2.227	.073
	선생님	125.20±11.17			120.50±16.26		
	친구	104.00±13.65			103.54±13.55		
	기타	102.50±14.51			109.00±19.39		

*P<0.05 **P<0.01 ***P<0.001

교회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삶의 목적, 영적안녕, 자아개념 및 자아 존중감 비교

〈표3-4〉교회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정도에 유의한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구분	교회 청소년(N=130)			일반 청소년(N=85)		
		자아 존중감 M±SD	t or F	p	자아 존중감 M±SD	t or F	p
가족 수	2명	35.33±4.93	2,974	.022*	37.00	.516	.724
	3명	41.23±5.94			37.00±5.85		
	4명	36.99±5.16			38.00±6.85		
	5명	39.67±5.34			37.69±4.57		
	기타	39.67±5.34			41.50±7.09		
가정의 생활수준	잘 사는 편	40.70±6.04	.624	.711	39.80±7.69	1.646	.157
	보통이다	37.76±5.84			38.08±5.91		
	못 사는 편	37.29±6.40			38.45±7.35		
주택소유	자가	38.11±5.59	.624	.910	31.84±11.72	1.852	.100
	전세	37.31±6.14			30.80±10.93		
	기타	35.80±6.72			32.00±2.83		
부모님의종교	기독교	37.61±5.87	1.100	.360	38.57±9.38	.348	.882
	불교	39.76±5.58			37.79±6.33		
	천주교	33.00±5.87			38.30±5.23		
	기타	34.00±7.07			36.60±3.05		
대학진학동기	취직하기 쉬워서	34.45±6.46	2.795	.043*	35.97±6.59	2.575	.060
	부모님의 권유	39.53±6.67			38.00±6.94		
	학문의 열정	38.03±5.40			43.20±5.59		
	자아능력개발	38.42±5.84			38.98±5.65		
가정분위기	대단히 화목	39.36±6.17	3.288	.023*	40.69±7.53	2.810	.045*
	화목	38.51±5.83			38.14±5.51		
	그저 그렇다	36.30±5.51			42.00±7.07		
	불우하다	30.00±7.81			34.75±6.49		
신앙의 영향	상	38.50±5.83	2.147	.098	39.43±9.68	.194	.824
	중	36.55±5.80			38.11±5.72		
	하	41.80±7.53			37.80±6.34		
종교나 신의 의미	있다	37.59±5.90	.382	.538	37.94±7.47	.022	.881
	없다	40.25±6.65			38.15±5.60		
종교생활의 필요성	꼭 필요	38.20±5.70	2.846	.062	40.30±8.00	.541	.655
	가끔 필요	36.09±6.39			37.73±6.12		
	잘 모르겠다.	42.25±4.57			38.25±6.60		

〈표3-4〉 계속

일반적 특성	구분	교회 청소년(N=130)		일반 청소년(N=85)		
		자아 존중감 M±SD	t or F p	자아 존중감 M±SD	t or F	p
종교의 도움여부	항상 그렇다	38.92±6.03	3.628 .008*	43.60±10.60	1.742	.149
	대부분 그렇다	37.70±5.30		39.25±5.06		
	약간 그렇다	34.38±5.40		37.03±6.38		
	대부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44.00±5.20 40.50±13.44		32.00±7.07 38.20±5.65		
일상의 신의주관	항상 그렇다	38.47±5.75	.478 .752	43.25±12.20	1.006	.410
	대부분 그렇다	37.38±6.35		39.86±5.15		
	약간 그렇다	37.05±5.24		36.89±6.25		
	대부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6.67±5.24 40.50±13.44		37.52±5.54 38.06±6.23		
종교서적탐독정도	날마다대부분보는편	40.7±5.44	3.856 .005*	50.00	1.533	.212
	볼때도,안볼때도있다	89.70±12.38		36.62±6.75		
	거의 보지 않는다.	76.32±10.71		38.58±5.99		
	전혀보지않는다.	86.00±13.31		37.82±6.34		
종교의식 참여정도	항상참석	38.14±6.41	.357 .784	38.13±7.43	1.605	.181
	대부분참석	37.44±5.87		38.49±5.11		
	때때로참석	38.00±6.22		38.44±6.76		
	거의 하지 않는다.	39.83±5.38		82.09±12.41		
부모님과 세대차의 정도	아주많다	34.54±8.32	1.506 .216	44.33±7.37	3.289	.025*
	많다	38.47±5.83		35.45±6.19		
	보통	37.89±5.67		38.21±6.07		
	없다	38.33±3.64		42.33±5.20		
신상문제 상담자	부모님	38.24±4.82	1.810 .103	39.24±5.36	1.612	.179
	선생님	44.60±3.71		44.00±8.49		
	친구	36.93±6.67		36.35±6.75		
	기타	36.81±5.74		39.83±7.08		

*P<0.05 **P<0.01 ***P<0.001

V. 고찰

본 연구에서는 교회 안의 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 영적안녕, 자아개념, 자아존중감을 비교 분석하여 고찰하였다.

교회 청소년(88.96 13.03)은 일반 청소년(83.62 15.08)보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더 높았으나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홍주(1982)의 연구결과(94.82), 전문대생을 대상으로 한 김경숙(1984)의 연구결과(96.91),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장혁표(1984)의 연구결과(102.58), 간호전문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김효빈(1992)의 연구결과(92.09),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Nam Kung(1980)의 연구결과(96.16)보다는 낮은 편이었다. Padelford(1974)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마약중독 정도와 삶의 의미와 목적 점수를 비교한 결과 정상 고등학생이 마약중독 학생보다 삶의 의미와 목적 점수가 높았다. 또 Meier와 Edward(1974)는 발달적 단계에 따라 연령을 구분하는 연구에서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즉 13-15세 집단, 17-19세 집단, 25-35세 집단, 45-55세 집단, 65세 이상의 5집단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연령의 증가에 따라 삶의 의미와 목적 점수가 점점 높게 나타났으나 17-19세 집단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17-19세에 해당되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고 보며 같은 시기인 Nam Kung의 결과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시대적인 변천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되며 삶의 의미와 목적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업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의미 탐구의 시기'에 있는 그들의 지도를 위해 학교, 교회, 지역사회의 깊은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며 청소년들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높여주는 프로그램개발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영적안녕은 교회 청소년이 평균 47.30 이었고 일반 청소년이 31.88($t=$

-11.082, $P = .000$)로서 교회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들보다 더 높았다. 이는 최상순(1990)의 연구에서 종교가 있는 집단의 영적안녕 점수가 종교가 없는 집단보다 영적 안녕 점수가 높다는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최상순(1990)은 영적안녕이 높을수록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신체적, 사회 심리적, 영적인 면을 포함하여 다차원적이며 통합적인 건강상태가 좋았다는 결과와 또한 영적 안녕이 높을수록 희망도 높은 것으로 보고하여 영적안녕이 희망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김과 이(1998)는 희망은 단순한 생각이나 느낌이 아닌 인식이나 행동을 계속적으로 변화시키면서 가능성을 상상하고 평가하며 느끼는 과정이라고 하였으며, Brown(1989)은 희망을 가진 사람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도록 동기를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Hinds(1984)는 정상청소년 및 물질남용으로 입원한 청소년의 연구에서 청소년이 느끼는 희망의 정의를 '반드시 해야하는 노력', '개인에 따른 가능성',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 '미래에 대한 예감' 등의 네 가지 영역에 대해 청소년들이 믿는 정도라 했으며, Farran, Herth and Popovich(1995)는 이 네 영역 중 청소년에게 현저한 것이 '노력하면 된다는 신념'이라고 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보아 청소년들이 성인보다 희망의 요소들을 서로 잘 조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청소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는 영적안녕을 높이기 위한 종교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자아개념 정도는 교회 청소년이 평균 106.82이었고 일반 청소년이 107.64로서 교회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들보다 더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 = .421, P = .674$). 조결자(1986) 등의 연구에서 종교 유무별로 자아개념을 비교한 결과 유의하지 않았고, 최상순, 김정숙(1998)의 기독교 대학 간호학생과 비기독교 대학 간호학생의 자아개념 비교연구에서 유의하지 않았다는 결과와 한혜숙(1995)의 일부공립 초등학교 학생과 사립초등학교 학생의 자아개념 비교연구결과 유의하

지 않게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결과와 동일했으나, 주간학생과 야간학생 간의 비교, 문제행동 정도별 학생군의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는 본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자아 존중감 정도는 교회 청소년이 평균 37.75였고 일반 청소년이 38.07로서 교회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들보다 더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 = .372$ $P = .710$). 박미영(2000), 박항순(1999), 이윤영(1998), 이옥련(1985) 등의 연구에서 비만학생이 정상체중 학생보다 신체상 및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김옥수(2002) 등의 연구에서 여고생보다 남고생이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교회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삶의 목적에 유의한 일반적 특성들을 살펴보면, 교회 청소년의 삶의 목적과 유의한 특성은 주로 신앙과 종교에 관련된 것이었다. 신앙생활에 참여하는 개인의 신앙정도에 따라 삶의 의미와 목적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Frankle(1972)이 주장한 삶의 의미와 목적은 정신적인 속성보다는 종교적 속성을 지닌다고 할 때 이런 결과는 인간의 본질적인 영적요구의 한 표현임을 나타내고 있다. 즉 자신의 삶의 전 영역에 신앙의 중요성을 느낄수록 삶의 의미와 목적은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일반 청소년의 삶의 목적에 유의한 특성은 생활수준, 대학의 진학동기, 부모님의 종교, 가정의 분위기 등과 같은 것이 특징적이다.

교회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영적안녕에 유의한 일반적 특성들을 살펴보면, 교회 청소년의 영적 안녕 정도에 유의한 일반적 특성은 종교나 신은 나에게 의미가 있다, 신앙생활의 의견, 대학 진학 동기, 신앙이 자기 삶에 미치는 영향, 나의 일상생활에 대한 신의 주관, 종교 서적 탐독 정도, 종교 생활의 필요성, 묵상이나 명상 기도생활의 정도, 종교 의식 참여 횟수 등이다.

일반 청소년은 자신의 종교, 부모님의 종교, 신앙이 자기 삶에 미치는 영향, 나의 일상생활에 대한 신의 주관, 신앙생활이나 종교의 도움 여부, 종교 서적 탐독 횟수, 종교 생활의 필요성, 종교 의식 참여 횟수, 자신의 신앙 문제의 상담자 등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적 안녕은 일반적 특성 중 종교적 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종교는 가치감, 인격적인 관계, 의무의 감각을 형성케 한다. 종교는 충동과 갈망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며 건전한 정신상태를 가지는 데도 도움이 된다. 찬양, 기도, 그 밖의 다른 예배 요소가 생을 깊게 하고 풍부하게 하며 건전성과 행복에 기여하는 점이 많다.

종교적 심성을 가진 청소년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도덕적, 종교적 지도를 받지 못하면 위기가 생기고 신앙을 부정하기도 한다. 믿음에 대한 이성적 이해와 종교적 훈련에 대한 수용을 위해 높은 수준의 종교교육이 청소년 초기에 필요하다고 하겠다.

교회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유의한 일반적 특성들을 살펴보면 교회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유의한 특성은 가정의 분위기, 대학 진학 동기, 종교 생활의 필요성, 자신의 신앙 문제의 상담 대상자, 부모님과 세대 차이였으나 일반 청소년은 가정의 분위기였는데 여기서 가정의 분위기는 교회 청소년이나 일반 청소년이나 관계없이 모두 자아개념과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조결자(1987) 등의 연구에서 부모의 직업, 아버지의 교육정도, 아버지의 양육태도 등이 자아개념과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에 나타난 것은 가정의 분위기와 관련 있는 변인들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자아개념은 종교의 유무와 상관없이 가정의 분위기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에서 일치하였으나 홍경자(1985)의 연구에서 자아개념은 성, 연령 등 일반적 정보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와는 다소 다르다.

교회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일반적 특성으로는 교회 청소년은 가정의 분위기, 대학 진학 동기, 신앙생활이나 종교의 도움 등이었으나, 일반 청소년은 가정의 분위기, 부모님과의 세대차이로서 둘 다 공통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가정의 분위기이므로 청소년기에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 형성에 가정의 분위기가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아개념이나 자아존중감은 주변에서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 형성된 것이다. 인간이 성장할 때 가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부모로부터 받는 대우는 자아개념이 어떠한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은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있어서 개인의 행복과 하는 일에 있어서 능률을 위하여 필수조건이다. 핵심적으로 한 인간이 자신이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이것을 인식하게 되면 긍정적 자아개념이 형성된다고 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가정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시점에서 가정의 응집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청소년 지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교회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삶의 목적 정도, 영적 안녕 정도, 자아개념 정도 및 자아존중감 정도를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비교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P시와 M시 소재 지역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고등부 학생인 교회 청소년과 고교에 재학중인 일반 청소년 총 2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1999년 11월 7일부터 2000년 3월 12일 까지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자료를 대상자에게 배부한 후 기입하여 작성한 후 회수 하였다.

연구도구로는 삶의 목적 정도 척도(PIL)는 Crumbaugh와 Maholick (1969)가 제작한 것을 남궁달화(1980)가 번안한 척도로서 일명 Purpose in Life(PIL)을 사용하였고, 자아개념 척도는 이훈진, 원호택(1995)이 개발한 척도를 이훈진(1997)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가 개발한 측정도구로서 최정훈(1972)이 번역한 것이며 영적 안녕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는 Paloutzian & Ellison이 개발한 도구를 최상순(1990)이 번안한 것을 사용했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에 따라 SPSS/PC 10.0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X² -test independent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교회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삶의 의미, 영적안녕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6$, $P=.000$)
2. 교회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삶의 의미,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영적안녕과 유의한 일반적 특성
 - 1) 교회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삶의 목적 정도와 유의한 일반적 특성
교회 청소년의 삶의 목적 정도에 유의한 일반적 특성은 나의 일상 생활에 대한 신의 주관($F=5.513$, $p=.000$), 종교 서적 탐독 횟수($F=7.623$, $p=.000$), 종교 생활의 필요성 ($F=7.872$, $p=.001$), 신앙이 자기 삶에 미치는 영향($F=5.175$, $p=.002$), 묵상이나 명상 기도의 횟수($F=4.635$, $p=.002$), 신급($F=4.489$, $p=.005$), 신앙생활이나 종교

의 도움($F=3.055, p=.019$), 기성세대와의 가장 큰 문제점($F=2.885, p=.025$), 종교 의식 참여 횟수($F=3.202, p=.026$)이다.

일반 청소년의 삶의 목적 정도에 유의한 일반적 특성은 종교 서적 탐독 횟수($F=7.144, p=.000$), 종교 의식 참여 횟수($F=5.577, p=.001$), 신앙이 자기 삶에 미치는 영향($F=8.064, p=.001$), 신앙생활이나 종교의 도움 여부($F=4.142, p=.004$), 나의 일상생활에 대한 신의 주관($F=3.914, p=.006$), 부모님의 종교($F=3.049, p=.014$), 가정의 분위기($F=3.650, p=.016$), 가정생활 수준($F=2.544, p=.035$), 대학의 진학 동기($F=2.744, p=.048$)이다.

2) 교회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영적안녕 정도와 유의한 일반적 특성

교회 청소년의 영적 안녕 정도에 유의한 일반적 특성은 신앙이 자기 삶에 미치는 영향($F=20.598, p=.000$), 나의 일상생활에 대한 신의 주관($F=14.702, p=.000$), 종교나 신의 의미($t=4.900, p=.000$), 종교 의식 참여 횟수($F=8.779, p=.000$), 신앙생활의 의견($F=7.139, p=.000$), 종교 생활의 필요성($F=19.201, p=.000$), 묵상이나 명상 기도의 횟수($F=9.723, p=.000$), 종교 서적 탐독 횟수($F=3.856, p=.005$), 대학 진학 동기($F=2.886, p=.038$)이다.

일반 청소년의 영적안녕 정도에 유의한 일반적 특성은 신앙이 자기 삶에 미치는 영향($F=19.931, p=.000$), 나의 일상생활에 대한 신의 주관($F=22.927, p=.000$), 신앙생활이나 종교의 도움 여부($F=12.649, p=.000$), 종교 의식 참여 횟수($F=7.755, p=.000$), 종교 서적 탐독 횟수($F=7.057, p=.000$), 종교 생활의 필요성($F=14.444, p=.000$), 자신의 종교($F=.318, p=.008$), 부모님의 종교($F=2.638, p=.030$), 자신의 신

상 문제의 상담자($F=2.840, p=.030$)이다.

교회 청소년의 자아개념 정도에 유의한 일반적 특성은 가정의 분위기 ($F=7.296, p=.000$), 대학 진학 동기($F=4.383, p=.006$), 자신의 신앙 문제의 상담 대상자($F=3.206, p=.006$), 종교 생활의 필요성($F=4.289, p=.016$), 부모님과 세대차의 정도($F=3.549, p=.016$), 교회 다니게 된 동기($F=2.849, p=.018$)이다.

일반 청소년의 자아개념 정도에 유의한 일반적 특성은 가정의 분위기 ($F=4.949, p=.003$)이다.

4) 교회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정도와 유의한 일반적 특성

교회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정도에 유의한 일반적 특성은 신앙생활이나 종교의 도움 ($F=3.628, p=.008$), 가정의 분위기($F=3.288, p=.023$), 대학 진학 동기($F=2.795, p=.043$)이다.

일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일반적 특성은 부모님과 세대차($F=3.289, p=.025$), 가정의 분위기($F=2.810, p=.045$)이다.

이상의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교회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자아개념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2. 일반 청소년들의 영적 안녕과 삶의 의미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3. 교회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영적안녕, 삶의 의미에 영향을 미쳤던 일반적 특성들을 고려하여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강상익(1986). 집단상담이 고교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준식(1979). 초등교사의 자아개념과 직업적응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기정 역(1996). 긍정적 자아개념의 형성. 서울: 문음사.
- 김달숙, 이소우(1998). 암환자 간호를 위한 희망 측정도구개발. 대한간호학회지, 28(2), 441-456.
- 김선남(1981). 자아실현 소집단훈련프로그램, 경상대학교 학생지도연구, 제7집.
- 김소야자(1987). 청소년의 성장발달과 간호. 서울: 수문사.
- 김승욱(1985). Viktor E. Frankle의 Logotherapy에 대한 연구. 고신대학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혜(1995). 의미요법 집단상담이 20대 미혼여성의 삶의 목적,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환(1969). 공격성과 불안 및 자아강도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옥수, 김선화, 김에정(2002). 남녀 고등학생의 비만도, 체중조절행위, 자아존중감에 대한 비교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4(1), p53-61.
- 김인자 역 (1985). 자아개념, 적응심리, 정민사, p159.
- 김학수(1971). 청소년기의 친애관계, 자아개념 및 불안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학생지도연구소, 학생지도연구, Vol. 14, No.1 23-25.
- 김효빈(1988). 영적간호중재가 암환자의 통증감소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종환(1988). 푸른이의 정상 장애, 10, 45.
- 고인균(1987). 중년 여성의 자아개념과 우울증에 관한 상관 연구. 연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도복음외 9인 (1990). 최신 정신간호학. 현문사.
- 박미영(2000). 비만아동과 정상체중아동의 신체상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소연(1993). 집단상담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숙명여자대학 대

- 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 박향순(1999). 비만아동의 신체상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숙(1996). 환자의 자기노출과 간호사에 대한 호감 및 신뢰성.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화조(1983). 고교생의 삶의 의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성영혜(1985). 청소년 비행의 요인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학위 논문, 제 15권.
- 신승희(1982). 대학생의 실존적 공허에 대한 조사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심혜숙(1996). 비행 청소년을 위한 MBTI성장 프로그램 개발.
- 양복순(1999). 중년 여성의 영적안녕, 자아개념, 우울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용재(1981). 심리적 갈등이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길자(1998). 집단의사소통 프로그램이 역기능적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28(3), 801-809.
- 이숙(1994). 일부 도시 주부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3(2), 80-97.
- 이정화(1986). 대학생의 생의 의미추구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희(1968). 한국대학신입생에 대한 자아개념과 적응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제8집.
- 이훈진, 원호택(1995). 편집증적경향, 자기개념, 자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 심리학회편, 연차 학술발표 논문집, 277-290. 서울:편자.
- 이훈진(1997). 편집증과 자기개념 및 귀인양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옥련(1985). 비만학생과 표준체중학생의 건강통제위 성격과 신체상에 대한 비교연구-서울시내 남녀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영(1998). 비만청소년의 성격특성 및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채현(1977). 초중등교사의 자아개념과 인간관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봉숙(1983).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적응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혁표, 정용부(1984). PIL을 통해서 본 신입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 부산 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 제 20권, 165-183.
- 정선아(2000). 자아성장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 정연숙(1984). 교회 청년에게 PIL Test와 SONG Test 반응 연구-목회 상담에 있어서 logotherapy의 적용을 위한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원식(1968). 자아개념검사 요강. 서울:코리안 테스트센터.
- 정원식(1985). 현대교육심리학. 서울: 교육출판사.
- 정홍주(1982). 학교상담에 있어서 Logotherapy의 적용을 위한 일 연구-교고생의 의미에 의 의지조사. 이화여대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 조결자, 김윤희, 조미영(1986).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자아개념 정신건강 비교분석. -서울시내의 일부주야간 고등학교 중심으로- 대한간호, 25(1), p57-84
- 조결자, 김윤희, 조미영(1987). 청소년의 가정환경 요인과 자아개념 정신건강비교연구. 대한간호, 26(1), p93-117
- 최상순(1990). 일 지역 성인의 영적 안녕, 희망 및 건강상태에 관한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 최상순, 김정숙(1998). 간호학생의 영적안녕, 희망 및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4(2), p331-342
- 최웅, 유재만, 홍경자. 자기발표력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전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 12권, 9-24
- 최정훈(1972). 지각 향성 검사 표준화에 관한 연구. 연세 논총 제 9집.
- 한혜숙(1995). 일부공립국민학교 학생과 사립국민학교 학생의 자아개념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9(1), 71-82.
- 홍경자, 노안녕(1985). 자아개념 및 자존심에 미치는 또래 상담에 의한 집단훈련의 효과. 전남대학교 학생지도 연구소
- Banks, R(1980). Health and Spritual dimension:relationships and implications for professional preparation programs. The Journal of School Health, 50(4), 195-202.
- Brown, P(1989). The concept of hope: implications for care of the critically ill. Critical Care Nurse, 9(5), 97-105.
- Burns, R.B(1979). The self-concept, Longman. N.Y.

- Chapman,N.L(1986). Spritual health ; a component missing from health promotion. American Journal of Helath Promotion, 1(1), 38-41.
- C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Crumbaugh, J.C.,& Maholick, L.J(1969) : Manual of Instuctions for the Purpose-in-Life Test, Munster, Psychometric Affiliates.
- Daniel T.L.Shek(1999). Meaning in life and adjustment amongst early adolescents in Hong Kong. The International Forum For Logotherapy. 22,36-43.
- Dossey, B.M. Keegan, L. Guzzetta, C.E., Kolkmeier, L.G(1995). : Holistic Nursing - A Handbook of Practice. An Aspen Publication, Maryland. pp 6-7, 18
- Ellison,C.W(1983). Spritual well-being :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Joru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1(4),330-340.
- Farby J.B.(1980). The Pursuit of Meaning:Logotherapy Applied to Life : 의미치료. 고병학(역).서울:다밀란,1985.
- Farran, C. J., Herth, K. A., & Popovich, J.M.(1995). Hope and Hopelessness : critical clinical constructs. Thousand Oak, London, New Delhi: Sage Publications.
- Fish, S, Shelly, J. A(1978). Spritual care : The Nurse' s Role. Intersarsity Press, Illnosis.
- Frankle,V.E.(1967). Psychotherapy and Existentialism : Selected Papers on Logotherapy : 심리요법과 현대인.이봉우(역), 왜관: 분도출판사,1979.
- Frankle,V.E.(1969). The Doctor and The soul. New York : A Bantam Book.
- Goddard, N.(1995). Sprituality as Integrative Energy; a Philosophical Analysis as Requisite Precursor to Holistic Nursing, Vol.22, 808-815.
- Goodloe, N.R. & Arreola, P.M(1992). Spritual Health:Out of the Closet. Journal of Health Education, 23(4), 221-226.
- Hiatt,J.F(1986). Sprituality, medicine and Healing. Southern medical Journal, 79(6),736-743.
- Hinds, P. S.(1984). Inducing a definition of "hope" through the use of grounded theory methology. Journal of Advanced Nursing,9. 357-362.
- Meier, A. M., and Edward, S,h.(1974). purpose in Life Test: Age and Sex Differenc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8, 184-189.
- NamKung Dal wha(1980) : A Study of the Purpose in Life among Korean High School Seniors, Oregon state university(Ph. D).
- Padelford, B.L.(1974). "Relationship between drug involvement and purpose in life,"

-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0, 303-5.
- Paloutzian & Ellison(1982). Loneliness, spritual well-being and the quality of life. In L.A.Peplau, D.Perman(Eds). Loneliness: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pp.224-236). New York: John Wiley & Sons.
- Rosenberg,M(197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conceiving the self. New York;Basic Books,Inc.
- Samules(1977). Inhancing self-concept in early childhood. New York : Human science press.
- Stol, R,II(1989). Spirituality and chronic illness. In Carson,V,(Eds).Spritual dimensions of nursing practice(pp.180-216).Philadelphia : W.B.Sounders.
- Taft, L(1985). Self-esteem in Later life: A Nursing perspective Advances in Nursing Science. 8(1),77-84.
- Tweedie Jr, D.F(1961). Logotherapy and the christian Faith:An Evaluation of Frankle' s Existential Approach to Psychotherapy, Grand Rapids, Mich: Baker Book House.
- Watkins, D and Astilla, E(1980). Self-esteem and School achievement of Filipino Girls, J of Psychology, vol 105, pp.3-5.

강은실

1954년 출생. 부산대학교 간호학과 및 동대학원에서 정신간호학 박사학위취득, 전인간 강연구회 연구위원(전인간호분과), 고신대학교 전인간호과학연구소장, 고신대학교 간호학과(정신간호학, 영적간호학 담당) 교수로 재직 중.

이영은

1956년 출생. 부산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석, 박사학위취득, 고신대학교 간호학과(아동간호학, 교구간호학 담당) 교수로 재직 중.

조향숙

1961년 진주출생. 고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 취득, 현재 고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생(정신간호학 전공).